



즉시 사용

담당

국무조정실
사회조정실 복지정책과

과장 백승일, 사무관 신동일
(044-200-2290, 2292)

이낙연 국무총리, 구세군 자선냄비 성금 전달 및 모금 봉사

-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2일(금) 오후, 서울 명동에서 연말연시 길거리 모금활동을 진행 중인 구세군 자선냄비를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,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.
 - * 참석자 :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령관, 장만희 서기장관, 곽창희 사무총장
 - 이날 행사는 이 총리가 구세군 자선냄비에 성금도 기부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.
 - 이 총리는 성금전달에 이어 구세군 코트를 입고 직접 성금종을 흔들면서 시민들에게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성금모금에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.
-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“우리 사회가 겉으로는 많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지만, 실제로는 외롭고 힘들고,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”고 강조하면서,
 - “시민여러분께서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,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라도 돕는다는 생각으로 외로운 이웃들을 살피시고, 따뜻한 손길 한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.”라고 말했습니다.
- 한편, 한국구세군은 지난 12월 1일(금) 자선냄비 시종식을 갖고 연말까지 한 달간 총 126억원의 모금을 목표로 전국 420여 개소에서 모금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※ (붙임) 한국구세군 현황

□ 설립

- 1908년 소외된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설립

* 구세군은 1865년 영국 런던에서 실업과 빈곤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군대 형태로 만든 민간 조직

□ 규모

- (조직) 학교법인 구세군, (재)구세군복지재단, 구세군자선냄비본부
- (직원) 사관 620명, 직원 1,200명

□ 연혁

- 1920년 후생학원(고아원) 설립, 아동복지사업 시작
- 1928년 자선냄비 모금운동 시작
- 1957년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 설립
- 2013년 구세군자선냄비본부 출범

□ 주요사업

- 사회복지시설, 종교기관, 학교 등의 산하기관(648개)을 통해
긴급구호·의료지원·결식아동 지원 및 자선냄비 모금 활동

* 기초·차상위계층 지원, 심장병 치료지원, 복지시설 지원, 교육·장학사업 등

□ 연말 자선냄비 모금실적

- ('14) 68억 → ('15) 74억원 → ('16) 109억원

□ 2017년 모금 목표액 : 126억원 ('17.12.1~12.31)

- 미 션 : “세상 가장 낮은 곳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”

* 전국 76개 지역, 420개소에서 자선냄비 모금 中